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주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관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관정하는 것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여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동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동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동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감을 예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말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27.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과 규정적 판단력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 ② 칸트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다고 보았다.
- ③ 칸트는 미적 감수성이 비개념적 방식으로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았다.
- ④ 칸트는 미감적 판단력을 본격적으로 규명하여 근대 초기의 합리론을 선구적으로 이끌었다.
- ⑤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28. [A]에 제시된 '취미 판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② '유용하다'는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 ③ '모든 예술'은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 ④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 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뒷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념적 규정은 예술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 ② 공동감은 미감적 공동체에서 예술 작품의 미를 관정할 보편적 규범이 될 수 있다.
- ③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다.
- ④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
- ⑤ 예술 작품에 대해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그 작품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

3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간주했기
- ② ㉡: 피력한다
- ③ ㉢: 개입하지
- ④ ㉣: 소지하는
- ⑤ ㉤: 화상되어

드디어, 칸트 지문에 1) 구조적 읽기 2) 논리, 추론적으로 읽기 3)반응하며 읽기를 적용하면서 읽어나갑니다.

우선, 1문단을 읽으시면서 재제와 대상을 이해하고, 제시된 대상, 개념들이 논리적으로 어떤 대립구도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하세요.

이것은 특정지어서 말하자면, 논리 추론적 읽기입니다. 텍스트를 읽고 논리적 관계를 반영해서 심리적 표상을 생성하는 것 입니다. 표를 이용해서 정리해보세요.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이성과는 달리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정리)

자 정리를 먼저 해보셨으리라 믿고 다음 진도를 나갑니다.

문단 1의 개념을 대립적으로 정리해보셨나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대립하는 개념을 정확히 읽어내느냐 못 읽어내느냐가 독해력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 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성 <-> 미적 감수성 이 서로 짝을 이룬다고 정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1문단을 정확히 읽는다면 1문단의 내용에서 서로 짝을 이루며 대립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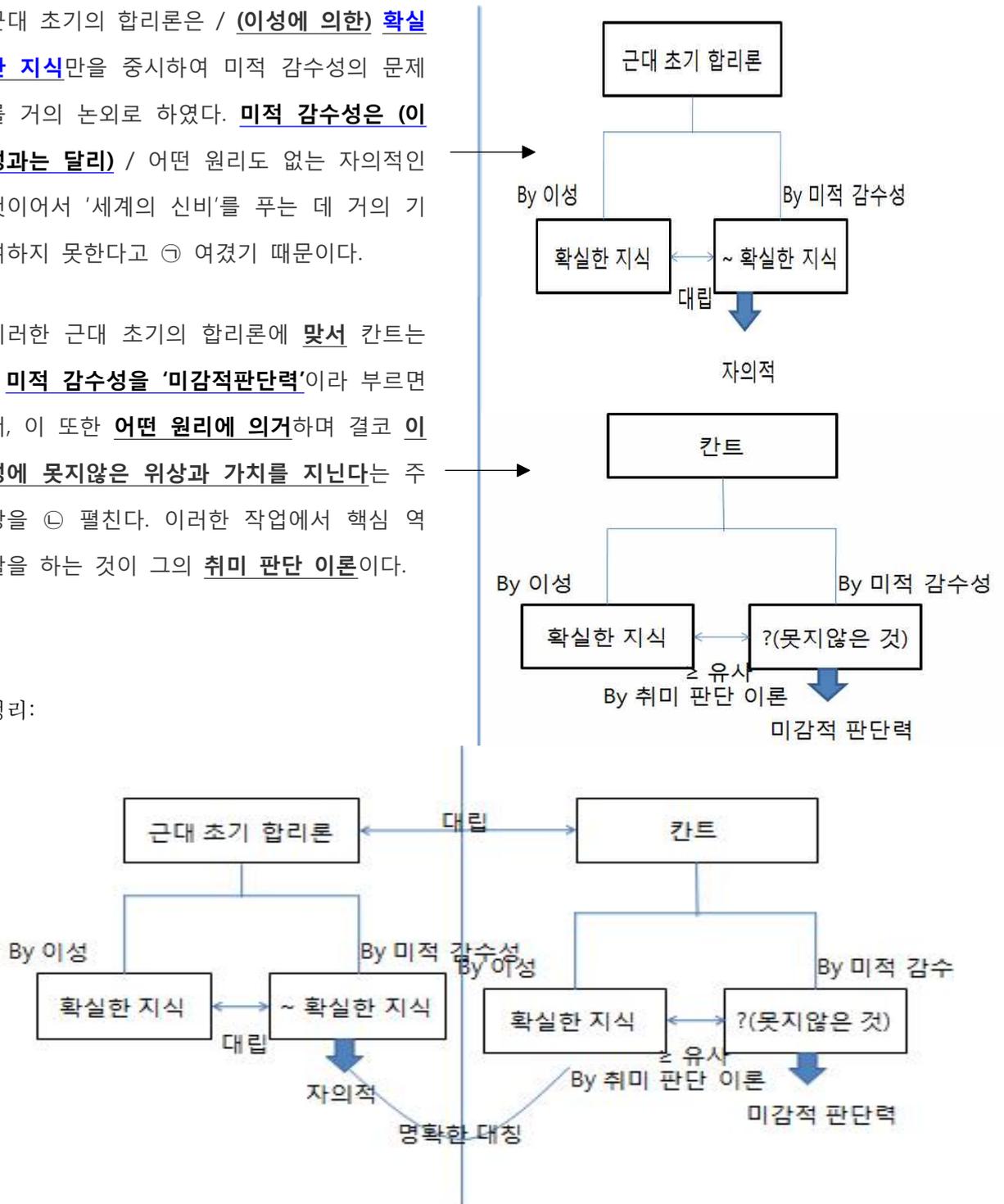
(이성을 통한) 지식 <-> (미적 감수성을 통한) ? 이 서로 짝을 이루며 대립하고 있다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것 입니다.

제가 1문단을 읽고, 정리한 도표입니다.

근대 초기의 합리론은 / (이성에 의한) 확실한 지식만을 중시하여 미적 감수성의 문제를 거의 논외로 하였다. 미적 감수성은 (이성과는 달리) / 어떤 원리도 없는 자의적인 것이어서 '세계의 신비'를 푸는 데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고 ⊖ 여겼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 펼친다. 이러한 작업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의 취미 판단 이론이다.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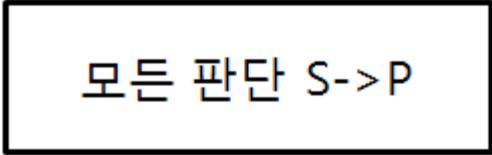
2문단: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세요 (위의 도표 참고)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어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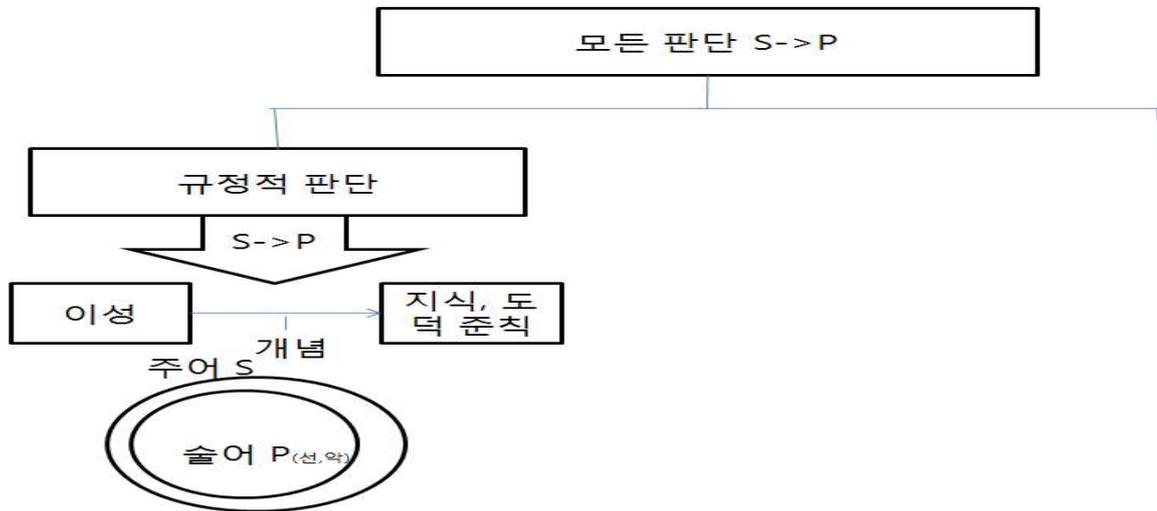
(정리)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 (논리 독해) 1문단 끝과의 연결 고리 (글의 전개 방식 : 연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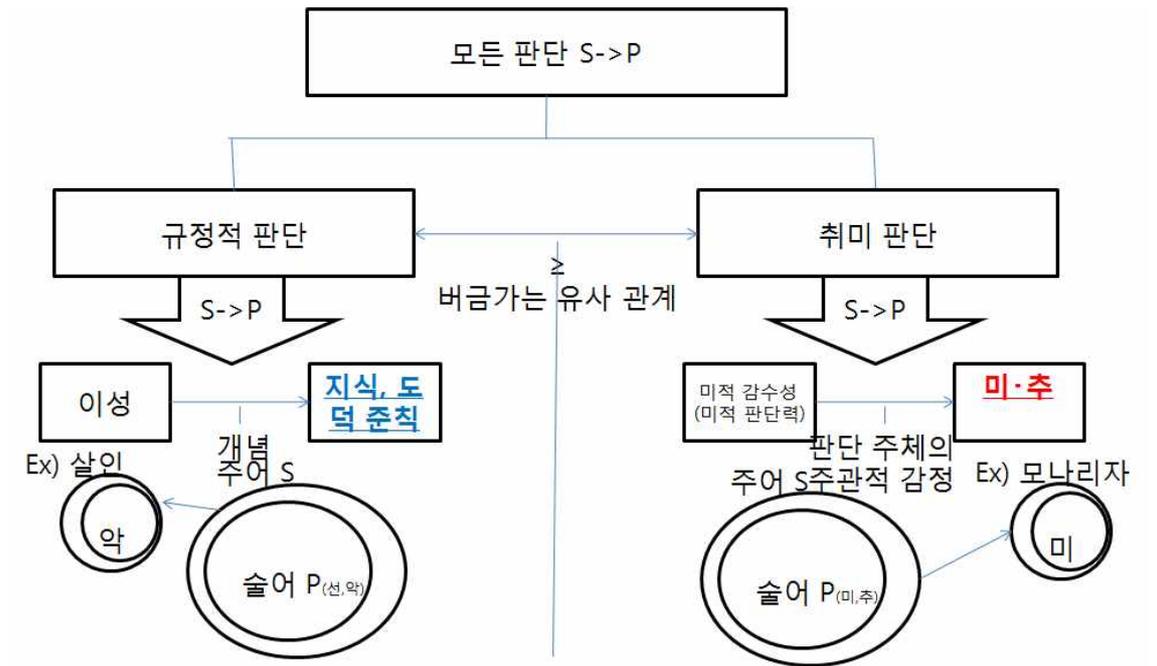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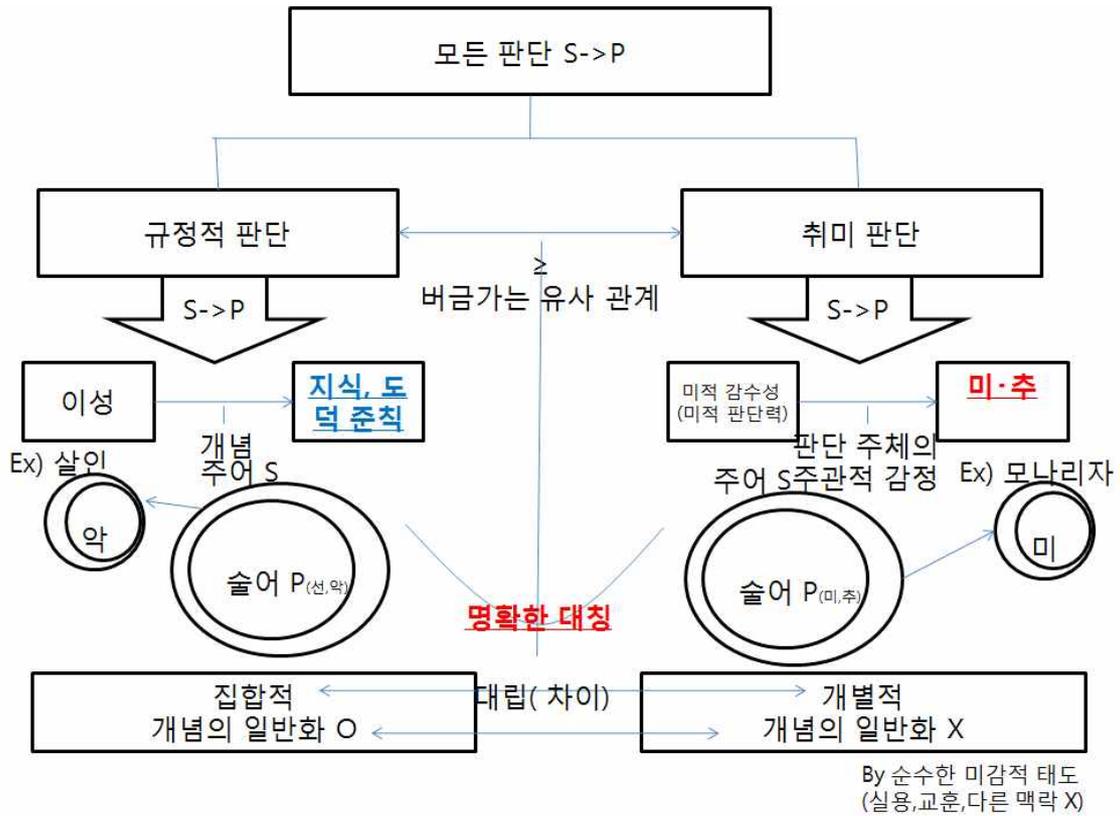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들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의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 즉 미감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용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 끼여들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2문단 정리)



3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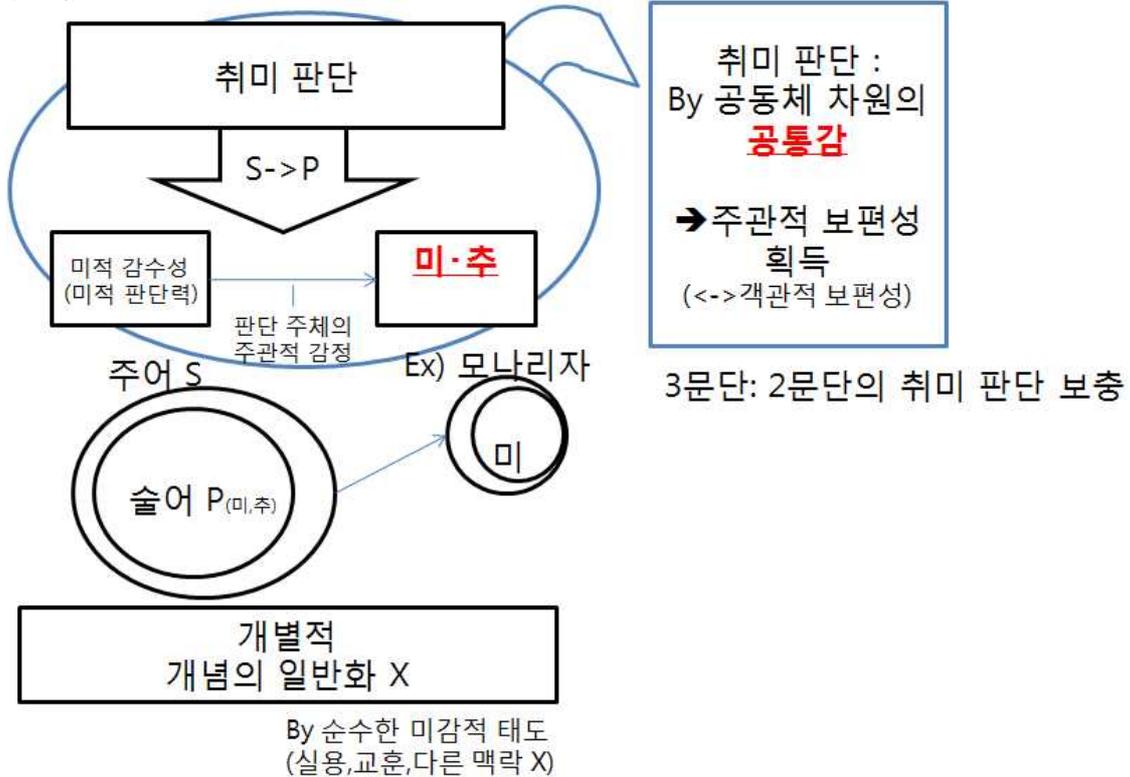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정리)

3문단:

중요한 것은 취미 판단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차원의 것이라는 점이다.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할 때, 취미 판단의 주체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 간에는 '공통감'이라 불리는 공통의 미적 감수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공통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 즉 **공통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통감을 예시한다.

(정리)



4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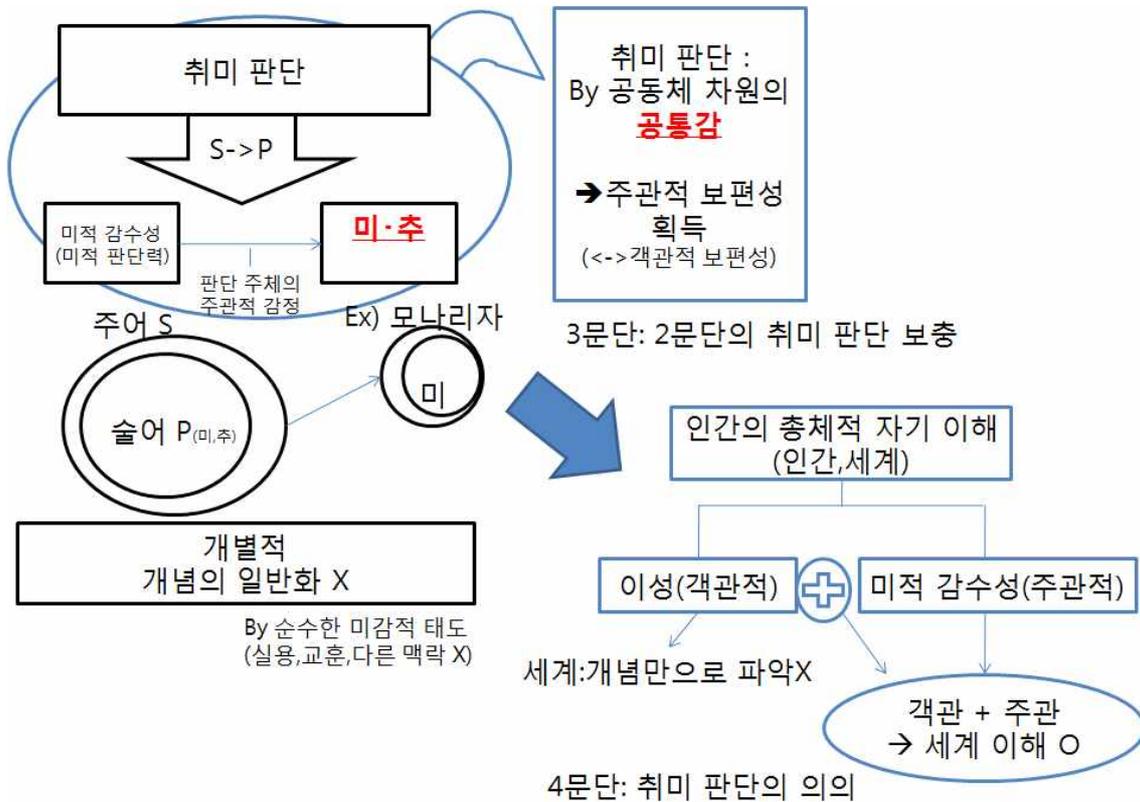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정리)

4문단:

이러한 분석을 통해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한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이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얻고자 한다면, 이성뿐만 아니라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게다가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낱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오늘날에는 미적 감수성을 심오한 지혜의 하나로 보는 견해가 ㉠ 퍼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그 이론적 단초를 칸트에게서 찾는 것은 그의 이러한 논변 때문이다.

(정리)



<지문 분석, 구조화 끝>

심화 구문 분석 및 해석

위 내용은 일반적인 학생의 논리와 추론 능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부분이 있다.

왜 저 글이 저렇게 도식화 되는 것인지
교수가 저 글을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칭적으로 썼다고 써있는데

뭐가 어떻게 구조적인 것인지 논리적인 것인지 파악이 안될 수 있다.

당연하다.

그래서 우선,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아마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읽고 의 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갔을)

부분을 같이 분석해보고 설명해주겠다.

<심화 구문 분석 문제> 앞의 두 문장을 a. 논리적 단위로 쪼개고 b. 각 단위 사이의 논

리적 연결 관계를 추론하여 도표로 시각화 하시오.

문장: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스스로 해보기:

<심화 구문 분석 문제> 앞의 두 문장을 a. 논리적 단위로 쪼개고 b. 각 단위 사이의 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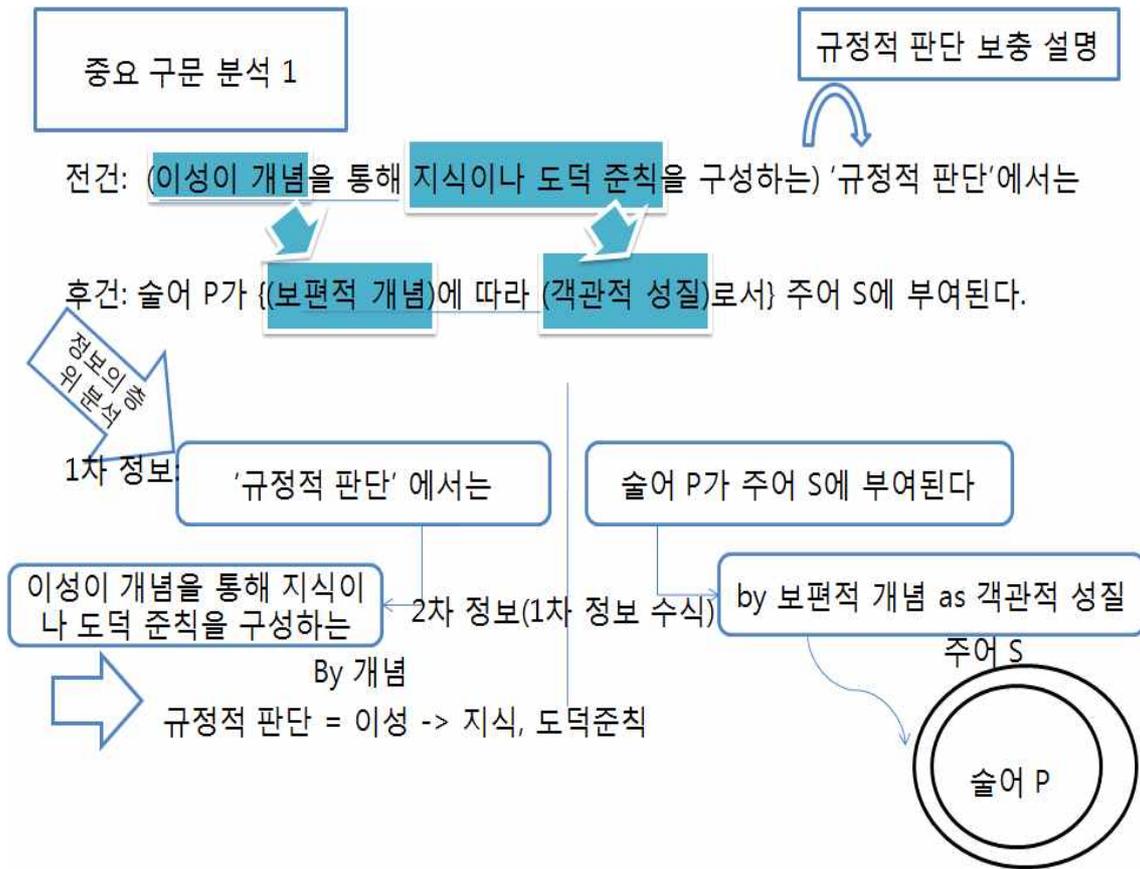
리적 연결 관계를 추론하여 도표로 시각화 하시오.

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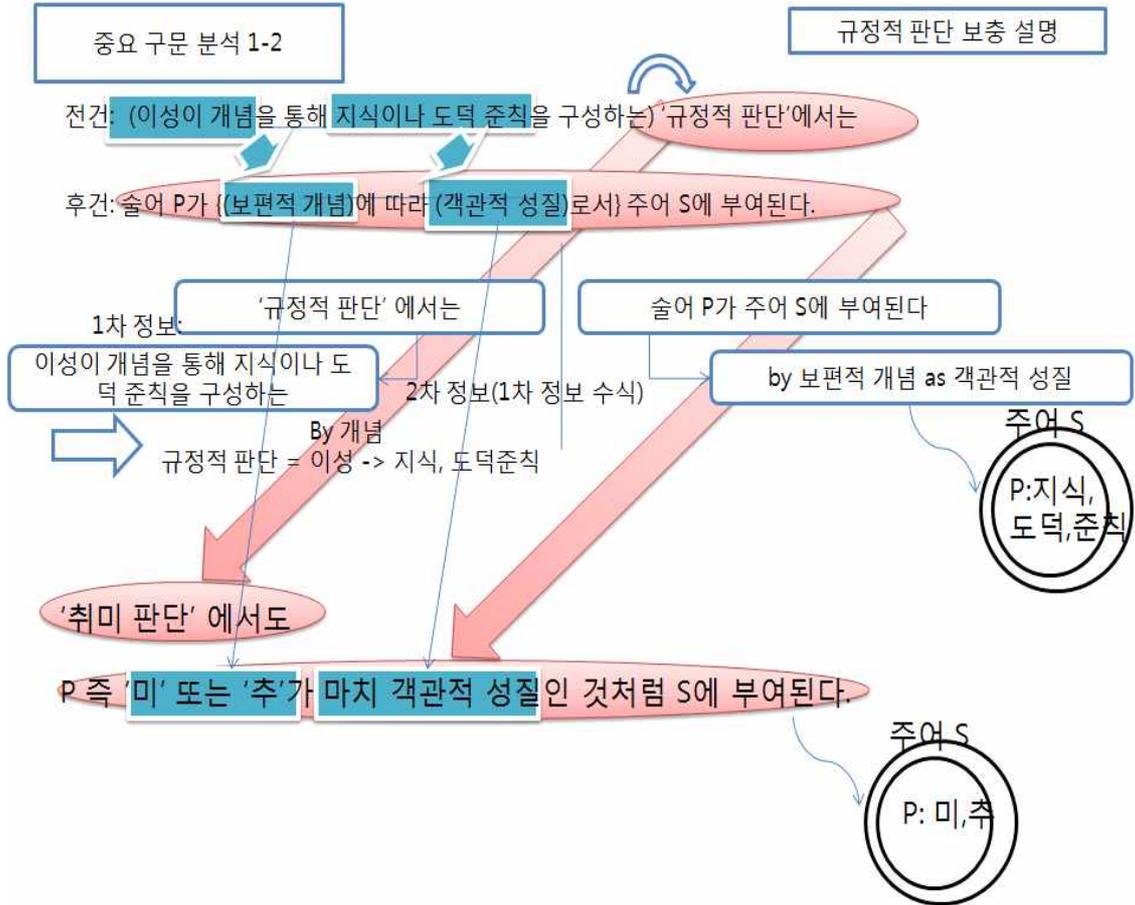
대 전제: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모든 판단 S->P

규정적 판단(좌항):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취미 판단(우항):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 또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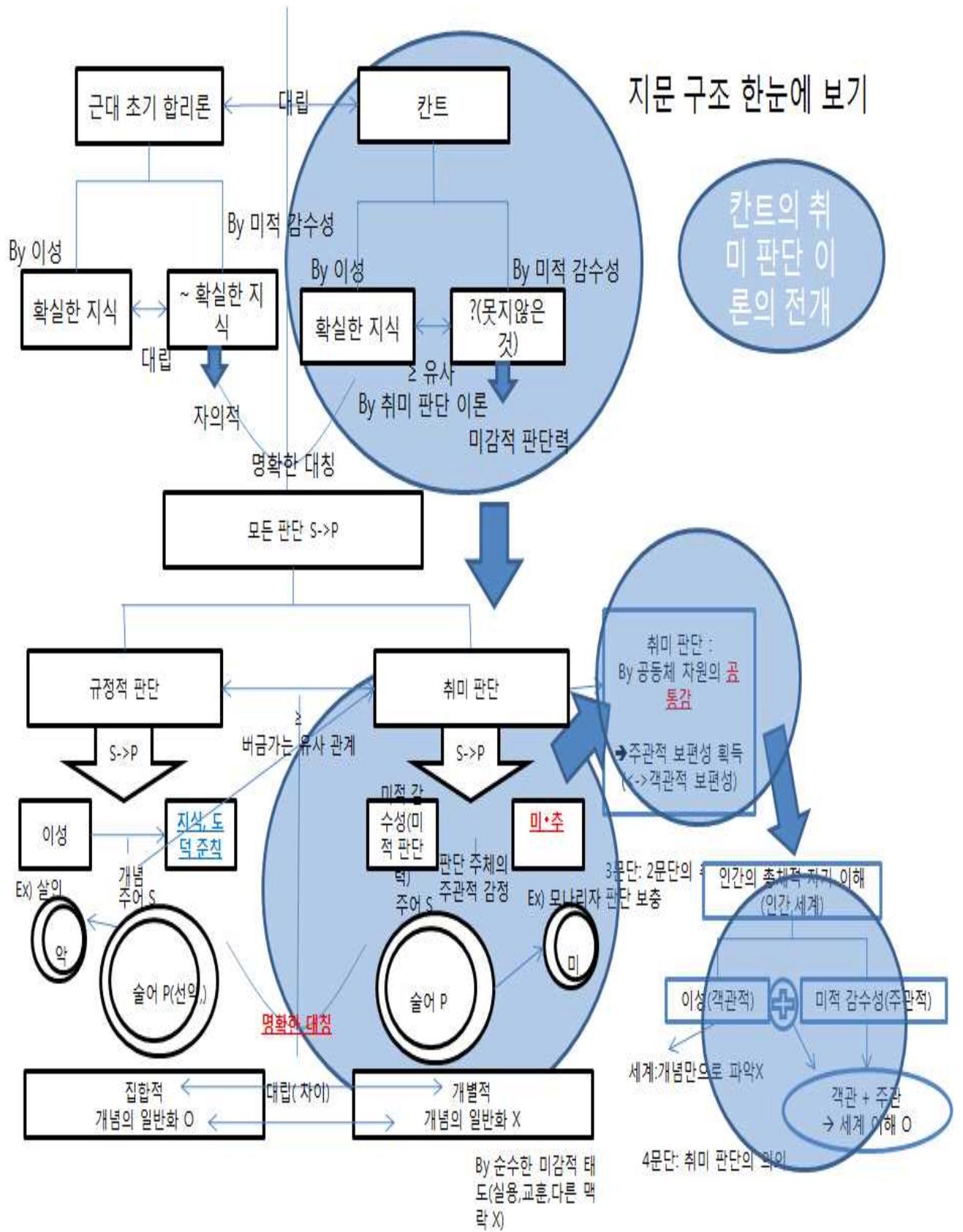
1. '이와 유사하게' 라고 명백하게 써놓았는데, 그 의미를 생각해보지 않고 다들 그냥 넘어 갔을 것이다.

교수들은 수능 지문의 쉽표, 부사어 하나 허투로 쓰지 않는다.

명심해라. 집중하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 추론해라.

2. 명제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글에서 '집합 관계를'을 순간적으로 생각해내지 못했다면.. 뭐. 아마 생각해내지 못 했겠지만, 추론적으로 읽는 연습을 많이 하면 점차 발상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지문 구조 한눈에 보기)



1. 지문 구조 분석

- 1문단 근대 초기 합리론의 주장(좌향) vs 칸트의 주장(우향)
- 2문단 규정적 판단(좌향) vs 취미 판단(우향) (좌향 \geq 우향)
- 3문단 취미 판단(우향)의 상술 (좌향 \leftrightarrow 우향)
- 4문단 취미 판단(우향)의 의의 (좌향 \leq 우향)

2. 지문 구조 심층 분석 - 의미보다 형식에 치중, 메타 분석 (지문 구조 한눈에 보기와 대조하며 이해할 것)(a에서 뒤로 갈 수록 심화가 되니, 꼼꼼히 생각하며 따라올 것)

a. 위 지문은 교수들이 쓴 수능 기출 지문으로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조직화되어 쓰여진 글이다. 1문단을 보면 좌향 vs 우향의 구도가 정확히 대조적(대칭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문단은 **처음: 좌향의 주장 소개 -> 중간: 우향의 주장 소개 -> 끝: 우향의 주장 상술 예고** 라는 논리적 전개방식으로 쓰여있는데, 이러한 논리 전개는 이 글을 이해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이 칸트 지문을 수능장에서 본 수많은 수험생들은 대부분, 첫문단을 그냥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독해의 하위과정, 명시적 독해)

안정적 100점을 위해서는, 그러한 수준을 넘어서, 문단 1의 논리와 구조(전개방식)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한다.

b. 2문단은 칸트의 주장(우향)을 상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데 그 전개,서술 방식에 위에서 나왔던 좌향 vs 우향의 논리적 대립(대칭) 구도가 그대로 적용,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논리적 구도를 살펴보면

좌향에는 규정적 판단이, 우향에는 취미 판단이 배치되어있고,
처음 : 규정적 판단 서술 -> 중간 : 취미 판단 서술 -> 끝: 취미 판단 상술로 글이 전개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1문단의 우향: 칸트의 주장 -> 2문단의 우향: 취미 판단 으로 연결됨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곧 우향의 내용이 주로 전개가 될 것이고, 우향의 장점이 부각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c. 역시, 3,4 문단에서는 우향이 좌향보다 우세한 위상을 차지하며 전개된다.

3문단에서는 좌향과 우향의 관계가 대등해지고 우향(취미 판단)을 보충해주는 글이 전개가 되며

4문단에서는 그러한 논리적 구도가 심화되어, 좌향과 우향의 관계가 역전된다.

이는 1문단에서 좌향<우향의 논리적 구도와 정합적으로 합치되는 부분으로, 1문단에서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전개 결과이다.

d. 이 논리적 관계를 기호로 표현하자면

A(좌향)와 B(우향)의 관계는

1문단: $A < B$ --> 앞으로 우향이 우세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2문단: $A \geq B$ --> 좌향이 우향보다 약간 우세하다. :과도기

3문단: $A \leftrightarrow B$ --> 좌향과 우향의 위상이 대칭적이다.

4문단: $A \leq B$ --> 좌향과 우향의 위상이 역전되어, 결국 우향이 우세한 관계로 끝난다.

이러한 논리적 전개 방식을 다시 깊게 추론해보면, 변증법적 논리와 연결될 수 있다.

(정) 1문단: not A but B (A는 아니고 오로지 B , $A < B$)

(반) 2~3: 과도기 ($A > B$ $A \geq B$)

(합) 4문단: not only A but also B (A도 맞고 B도 맞지만, B가 더 중요, $A \leq B$)

라는 논리 도식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

위의 설명은